

“바둑은 내 인생...올해 꼭 프로기사 될거예요”

2017 희망을 쓴다
바둑 영재 김근태·박동주군

“한 열 번요, 아냐... 음 한 스무 번, 서른 번 넣었냐?”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은 김근태·박동주가 말했다. 2일 광주 신창동 ‘신창 바둑학원’에서다. 엄마 손 붙잡고 바둑학원을 찾았던 일곱 살 꼬마 둘은 해가 바뀌어 이제 열세 살이 됐다. 숫자는 그간 바둑 때문에 근태와 동주가 눈물 보였던 횟수다. 제 입으로 말해놓고선 “아! 엉엉 운 건 아냐고, 그냥 눈물이 쪽 흘러버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라며 놀란 표정이다. 왜 울었느냐는 물음엔 “유리하게 판을 끌고 있는데 졌을 때”, “꼭 이겨야하는 바둑을 내쳤을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두 아이는 올해 ‘입단’이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전국에서 1년에 단 17명을 뽑는 프로기사가 되는 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표다.

처음엔 바둑판 앞에 앉아서 10분도 버티내지도 못해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다고 한다. 검은 돌·흰 돌의 의미도, 집은 뭐고 어떻게 짓는 것인지도,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집에서 바둑TV를 보다가 프로기사들이 멋있어 보여서, 친척이 바둑을 배운다기에 부모를 졸라 바둑돌을 손에 쥐었다. 사활(死活) 문제를 풀면 풀수록, 프로기사의 기보(棋譜)를 보면 볼수록, 상대와 게임을 하면 할 수록 바둑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공부보다 바둑이 재미있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집에 갈 생각보다는 한 판 더 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저절로 프로기사가 되는 게 꿈이 됐다.

바둑돌을 첫 첫 해와 여덟 살 때는 하루 3시간, 아홉 살부터는 하루 10시간씩 그 동안 2만 시간 이상을 바둑에 쏟아부었는데도 프로기사가 되는 것은 만만치않다. 어렵다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통해 쏟아지는 변호사가 매년 1500명, 등단 관문으로 불리는 신춘문예에 당선자가 100명을 웃돈다

패할 땐 눈물 흘리는 초등생
단 17명 뽑는 바늘구멍 뚫기
하루 10시간 바둑공부 매진

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풀어야할 바늘구멍이 얼마나 좁은지 가슴에 와닿는다.

같은 바둑학원에 다니는 친구지만 승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는 바둑 세계에선 근태와 동주는 ‘맞수’다. 입급살에 입문한 근태는 광주교육감배 바둑대회 우승, 신안 천일염배 학생부 우승, 조남철배 전국학생바둑대회 유단자부 3위 등 우수한 성적으로 광주에서는 동주와 수위를 다툰다. 같은 해 입문한 동주는 티브로드배 전국학생 바둑대회 저학년부 우승, 광주시장배 우승, 광주교육감배 우승 등 빼어난 성적을 냈다. 동주의 경우 한국형 알파고 ‘돌바람’과 대결할 정도로 이름이 이미 전국 바둑계에 알려졌다.

둘 모두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에는 10~15수까지 내다보며 바둑을 둘 정도다. 광주지역 바둑학원 지도자 가운데선 근태와 동주를 쉽게 꺾을 만한 실력자가 없다는 게 스승 김경남 원장(광주바둑협회 경기이사)의 설명이다.

둘의 기풍(棋風)은 완전히 다르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동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 생각을 깊게 하고선 탄탄한 세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반면, 밑수가 유독 적은 근태는 실리를 추구하며 전투를 즐기는 호전형이다.

지난해 신안군이 낳은 세계적 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패배하면서 바둑에 대한 열정이 식었을 때도 하지만 이들은 초등생답지 않게 의지한 대답을 내놔다. 인간과 기계(인공지능)가 바둑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동주), 인간이 노력을 통해 더 훌륭한 묘수를 개발해낸다면 알파고도 천하무적은 아니다(근태)는 것이다.

바둑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비슷하지만 기풍과 성격 차이만큼, 프로기사가 되려는



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 바둑학원에서 동갑내기 맞수로 불리는 김근태·박동주(13·오른쪽)군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두 소년은 “올해는 꼭 입단 테스트를 통과해 프로기사가 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유도 다르다. 동주는 ‘평소 좋아하는 프로기사들을 직접 보고 바둑을 함께 둘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근태는 “어려운 형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엄마, 아빠에게 보답하기 위해 올해도 바둑만 보고 달려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패한 뒤면 서러운 맘에 울음을 토해내는 동주와 근태,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온 종일 바둑에만 매달리는 두 소년은 이미 인생에서도 바둑에서도 프로였다.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함께 토지·건물 매매했다면...

현재 “사립학교법 위반 아니다” 결정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토지·건물을 매매했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치원 매매 금지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금지된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매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유에 처분한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

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을 매수해 유치원변경인가를 받았다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유에처분을 받은 B씨의 취소 청구도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3월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건물·토지를 매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에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2월 이 유치원을 매입해 변경인가

를 받은 혐의(유아교육법 위반)으로 A씨와 함께 기소유에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4월 “협회가 없다. 기소유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매수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일단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원 절차를 거

쳐 다시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유치원의 공백이 발생해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안이 초래된다”며 “오히려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우려하는 학교교육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고려해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일체로 매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금지 규정의 범위에 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의 판결이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 배치된다”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67명 추가 인정

3년만에 7차 보상심의

총 5584명으로 늘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6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난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만이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5584명으로 늘게 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를 신청한 77명 중 67명이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5584명으로 늘게 됐다.

연행이나 구금, 상이(傷痍)자는 신청한 33명 중 31명이다. 상이는 16명 중 8명, 연행과 구금은 28명 모두가 인정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2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7차 보상은 2014년 말과 2015년 8월, 관련법 등이 개정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1년간 관련 여부 심사, 장해 여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조

사와 장애등급 판정 등을 거쳐 이번에 1차 관련자를 결정했다.

이번 7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사망과 행방불명, 연행, 구금 등 모두 513명이다. 광주시는 오는 2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5·18 관련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교동계의 최장인 권노갑(86)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비롯해 이훈평(73), 김태광(73), 유훈근(76) 등 이른바 동교동계 인사들은 2차 심사에서 관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도 2차 심사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 등은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께 남영동 대공본실에 연행·구금됐으며, 정치권 인사 중 사실상 마지막 신청자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 운동 보상에는 지금까지 9234명이 신청, 이번을 포함해 5584명이 유공자로 지정됐으며 보상은 2468억원이 지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내달 초부터 본격 운영

레커차까지 모든 차량 기능시험 가능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레커차 등 모든 차량 기능시험이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이 광양에 들어선다.

광양시는 광양읍 덕레리에 현재 공정을 98%에 달하는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을 오는 10월께 완공한 뒤 한 달 정도 시범운행을 거쳐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두 번째로 들어선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불가능했던 레커차 등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총면적 2만9113㎡ 중 연면적 3647㎡의 부지에 본관, 기능시험장, 부속건물 등이 들어선다. 본관 건물에는 민원실, PC 학과장, 교통안전교육장, 신체검사실,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다.

특히 기능시험장에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유일한 소형과 대형 트레일러, 레커 등 모든 차량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시험장이 본격 운영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비롯해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모든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연간 25만명으로 예상되는 운전면허 수험생과 동행인이 지역 식당과 편의점, 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형진기자 pyj4079@

장릉에 숨고 이불 뒤집어쓰고...도박 단속 현장 ‘가관일세’



○...영광의 한 주택에서 주부, 택시기사 등 남녀 14명이 뒤섞여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줄줄이 경찰서행.

○~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8)씨 등은 지난달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가량 영광군 법성면의 한 주택 2층에 모여 판돈 1000만원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맹’을 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버티다 지원 요청을 받은

소방관이 강제로 개방하려고하자 문을 열고 자수했다.

○...경찰은 장릉에 숨어있는 사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사람 등 판을 벌인 14명을 찾아내 검거하고 소과 등에 숨겨둔 화투 18세트, 판돈 1000만원을 압수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나는 구경만 한 사람”, “나는 잔 심부름만 한 사람”이라며 발뺌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고 도박 혐의 모두로 입건.

/영광=박형진기자 pyj@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오후 3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2017. 2. 8(수) 오후 3시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 자격
2학년	○명 (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상시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